

“4만 교육가족 마음을 잡아라”

“교원 안식년제 도입·아파트 신축해 주겠다”

시도 교육감 후보들, 너도나도 교원복지 공약

“교육가족의 마음을 잡아라” 6·2지방선거 광주·전남 교육감 예비후보들이 교원안식년제 도입·교원 사택 신축 등 다양한 교원복지 공약으로 ‘교심(敎心)’ 잡기에 주력하고 있다. 광주 1만 4000천여명, 전남 2만 4000여명에 이르는 교직원들이 일반 유권자들의 표심을 움직인다고 보기 때 문이다.

김장환 전남도교육감 예비후보는 12일 “교원들의 자질개발을 위해 안식년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유급 안식년제를 추진하겠다”면서 “이 기간 동안 대학과 민간기업 등에서 능력을 키우도록 하고, 교육과학기술부 등과 협의해 급여와 경력·호봉 등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또 ▲교직원 자율연수경비 전액 지원 ▲다자녀(3명 이상) 가정 교원인사우대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장만재 후보도 “교사들이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직무경감과 행정체계를 기존 지시·감독에서 교단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장 후보는 또 “교사들이 급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투명한 인사 정책과 교원보호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서기남 후보는 ▲교사 사택 현대화 및 교사주택 임차료(현 2000만원 수

준) 현실화 ▲교장·교감 자격증 취득자 우선 발령제 ▲전문직 위주의 인사시스템(승진·전보 특혜) 개혁 등을 공약으로 내놴다.

신태화 후보는 전국 최하위 수준인 전남의 교육 청렴도를 높이는 등 교권 회복을, 윤기선 후보는 해외 우수 연구기관 연구원 파견 등 해외연수 대폭 확대를 비롯한 교원 아파트 신축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들의 공약도 눈에 띈다.

안순일 후보는 “교사와 행정직·비정규직 교원의 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

하고 결재수단을 간소화해 각종 잡무를 경감하겠다”면서 “특히 모든 학교에 상담교사를 배치하고 비정규직 직원의 수당 현실화,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등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재 후보도 ▲비정규직 처우 개선 ▲우수교사 특별 승진제 ▲교원의 외국 연수 기회 확대 등을 내놴다.

김영수 후보는 인사 등 교육비리 개선을 통한 교원 사기 진작을, 장휘국 후보는 교사의 수업 외 업무 단계적 폐지를, 고영을 후보는 교사 행정 업무 70% 축소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장애우도 투표합니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6·2 지방선거를 21일 앞둔 12일 북구 동림동 장애우종합복지관 강당에서 장애우 400여명을 대상으로 투표시연회를 개최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강진군 공무원 ‘해명’ 선거개입 공방

강진원 후보 군정 비난하자 반박… 선관위 “안 된다”

무소속 돌풍 지역으로 꼽히고 있는 강진군수 선거를 둘러싸고 예비 후보들 간의 공방전에 선거관리위원회까지 휩쓸리는 등 치열한 난타전이 펼쳐지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현 군수이자 무소속의 황주홍 예비 후보와 맞서는 민주당의 강진원 예비 후보가 최근 자신의 선거 사무실 초대형 현수막에 문 화복지타운 건립 사업, 테마파크 군유지 매각 등 강진군 역점 사업의 문 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을 적시한 것.

이 같은 강진원 후보의 공세에 당 당 사업을 추진했던 강진군청 부서 책임자 3명이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을 지역 언론사 게시판에 올리며 적극 대응에 나섰다.

이에 따라 강진군 선관위는 이번 논란과 관련, 공무원의 선거개입 여부를 검토한 뒤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도 선관위에 최종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

공무원들이 후보들 간의 논쟁에 적극 개입, 해명성 의견을 제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황주홍 후보 측은 “공정 선거를 해치는 행위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선관위의 업무”라며 “선관위의 이번 판단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강진군 공무원들도 “선거판이라고는 하지만 정당한 행정 행위를 애곡하는 행위를 바라만 봐야 하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반면, 강진원 후보 측은 “명백하게 공무원의 중립성이 훼손된 사례”라며 “선관위의 판단이 옳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지역민심 당 지도부에 가감없이 전달”

조영택 민주당 원내대변인

“민주당의 진심이 국민에게 정확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1일 민주당 원내대변인으로 임명된 조영택 의원(서구갑)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야당은 좀 더 성숙한 자세를, 여당은 보다 포용력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여야 대변인이 먼저 상호 존중과 품격 있는 논쟁 등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여야 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그동안 민주당의 진심이 여러 가지 이유로 잘못 전해진 부분도 없지 않았다”며 “실시간으로 정책과 활동을 정확하게 전해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대변인은 “원내대변인이라는 점에서 지역민심을 당 지도부에

가감 없이 전달하는 등 지역민과 민주당의 소통 창구 역할에도 충실하겠다”며 “지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장 출신으로 18대 국회에 진출한 조 대변인은 합리적인 성품을 기반으로 한 탁월한 조정 능력에 전략적 마인드를 겸비하고 있어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인 국정 운영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책임자로 꼽혀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무안군수 후보

서삼석 전략 공천

민주당은 12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6·2 지방선거 무안군수 후보로 서삼석 현 군수를 전략 공천했다.

이에 따라 서 군수는 3선 도전의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

무안군수 후보 전략공천을 놓고 서 군수와 정해균 전 여수부시장이 막판까지 치열한 경합을 벌였으나 당선 가능성이 높은 서 군수가 높은 평가를 받아 최종 낙점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 군수는 이날 “6·2선거에서 필승해 지역의 최대 현안인 한·중미래도 시 성공적으로 추진, 무안의 자주적 재원마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무안군수 후보 공천을 끝으로 전남도 내 22개 시군 단체장 후보를 모두 결정했다. /박진표기자 jkpark@kwangju.co.kr



■ 지방선거 핫코너

강운태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 최선”

강운태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는 12일 “광주의 랜드마크인 무등산을 2012년까지 국립공원으로 승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 후보는 이날 선대위원장인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장관과 함께 무등산보호단체인협의회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시장이 된다면 취임 직후 곧바로 타당성 조사 등 행정절차를 밟아 2012년에는 환경단체와 시민이 바라는 대로 무등산이 국립



문화유산 등록과 함께 1·2 수원지의 근대문화유적지 지정 등을 위해 적극적인 시정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원으로 승격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강 후보는 “입석대·서석대 등 주상절리대의 세계복합

오현섭 여수시장 예비후보 등록

민주당 오현섭 여수시장 후보는 12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섰다.

현직 시장인 오 후보는 이날 오전 박람회조직위원회 여수현직사무소 현관식과 2012여수세계박람회 성공 개최 심포지엄 참석을 끝으로 민선4기 여수시장 업무를 마치고 이날 오후 4시 시장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오 후보는 또 14일 오전 11시 김성곤·주승용 의원과 당원, 지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질 예정이다.



조호권 동림지구에 선거사무소

광주시의원 ‘재선’ 도전에 나선 조호권 민주당 예비후보는 13일 오후 6시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간다. 조 후보는 이날 오후 북구 동림2지구 선거사무소에서 당원 및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열고 그동안 구상해온 도심 활력 프로젝트 등 ‘5대 희망약속’을 제시한다.



전우근 민주당 탈당 무소속 출마

전우근 광주시의원(북구 제4선거구)이 12일 불공정 경선을 주장하며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시의원으로서 지역민원 처리와 주민봉사에 노력해 온 결과에 대해 당의 그늘이 아닌 무소속으로 출마해 주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혜령 ‘남광주 시장 활성화’

광주 동구 2선거구 무소속 양혜령 시의원 후보는 12일 ‘남광주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양 후보는 이날 “남광주 시장은 많은 시민과 상인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기존의 주차장 진·출입로는 매우 협소해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수영 선거사무소 개소

민주당 김수영 광주 서구 가선거구(화정1·2동, 농성1·2동, 양동, 양3동) 기초의원 후보는 13일 오후 5시 광주 서구청 앞 후보사무실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진다. 김 후보는 이날 여성의 눈으로 지역 살림을 꼼꼼히 챙기는 활동으로 좀더 성숙한 지방정치를 하겠다는 포부를 밝힐 예정이다.



박준영 “엑스포 지구 노비자 관광특구”

박준영 민주당 전남도지사 후보는 12일 여수에서 열린 여수엑스포 조직위원회 현관식에 참석해 엑스포 성공 개최를 기원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여수시 돌산청사에서 열린 여수엑스포 조직위원회 사무실 현관식에 참석, 강동석 조직위원장 등과 함께 현관개막식을 가졌다. 여수엑스포 조직위는 2012 여수엑스포 개막 2년(2012년 5월 12일 개최 예정)을 앞두고 서울에서 여수로 이전했다.



력 기반을 다지는 첫 출발”이라며 “엑스포 지구를 ‘노비자(No Visa) 해 양관광특구’로 지정해 외국인 관광객을 대거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 자리에서 “여수 엑스포는 전남의 브랜드를 전 세계에 알릴 절호의 기회이자, 해양발전의 동력 기반을 다지는 첫 출발”이라며 “엑스포 지구를 ‘노비자(No Visa) 해 양관광특구’로 지정해 외국인 관광객을 대거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강기갑·장원섭 민노당 지지 호소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가 12일 광주를 방문해 장원섭(사진)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와 구청장 후보와 함께 노동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강 대표는 이날 강기수 서구청장 후보·정형택 북구청장 후보 등과 함께 기아자동차 생산라인을 순회 방문하고 노조 간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강 대표는 “정치를 바꾸겠다는 노동자들의 염원이 씨앗이 돼 싹을 틔워가고 있다”며 “노동이 존중받고 일하



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를 위해 민주노동당과 함께 더 큰 결집을 내던자”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또 “노동자들의 처지를 가장 잘 알고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해 앞장서 온 장원섭 후보 등과 함께 우리의 일자리를 지키고 세상을 바꾸자”고 호소했다.

김경부 진도군수 무소속 출마

민주당 김경부 진도군수 예비후보가 12일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군민들이 원하고 민주당 당내 경선 결과에서도 득표수가 많았지만, 민주당은 잘못된 공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자 전략공천이라는 방법을 통해 똑같은 사람을 진도군수 후보로 결정했다”며 “민주당이 군민의 뜻을 애곡하고 당헌과 당규를 외면하면서까지 부도덕하고 비양심적인 공천을 단행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장만재 “도민참여 인사위 구성”

장만재 전남도교육감 예비후보는 12일 “도민참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추천 교육장 공모제를 운영하는 등 투명한 인사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장 후보는 “교육청의 인사 정책이 실패하면 그 후유증은 고스란히 학생과 교사, 학부모에게 되돌아가고, 학교교육도 엉망이 된다”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정책은 구호가 아닌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 만큼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인사정책



‘노가리고 아웅’식의 공모제와는 다른 제도”라면서 “주민이 원하는 교육장을 직접 추천하면 엄격한 심사 와 자질검증을 통해 선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기선 “글로벌 인재 집중 육성”

윤기선 전남도교육감 예비후보는 12일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마케팅 전략을 펼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면 빈부의 격차없이 글로벌 인재로 키워내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농산어촌이 대부분인 전남의 학부모들이 사교육비 부담과 낙후된 교육여건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확대를 유도하고, 각 기업의 사회 기여 자금을 유치해 선진국 수준의



외체현원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전남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서기남 “경제 교육 시스템 확충”

서기남 전남도교육감 예비후보는 12일 “경제캠프 개설 등 체계적인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 후보는 “사회의 다양화로 경제활동이 복잡해지면서 물질만능주의와 과소비 등 부작용을 차단할 경제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면서 “물건 아껴쓰는 법부터 용돈쓰는 법, 신용사회를 살아가는 법 등 다양



참여할 수 있는 경제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권일·주지중·박현영기자 cki@